신축 비엔날레관 부지 결정에 대한 고언

기고
최만길
공공노조전국미술인
조합광주전남지회장

세계적인 인문 지리학자인 이푸 투안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며 쓰는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구분지어 사용한다. 그는 공간과 장소 개념을 대비해 설명하면서 이들이 갖는 의미를 인간이 겪는 사회문화, 역사적 맥락까지 결부해 파악하려 했다. 뜬금없어 보이지만 필자가 정초부터 공간과 장소 개념을 꺼내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광주비엔날레관 신축 부지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광주는 예향이라는 자부심 아래 지금까지 대표적인 문화예술 사업의 하나로 광주비엔날레를 지속시켜 오고 있다. 물론 이들 구체적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현재 비엔날레관 신축 용도로 무려 12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만 미뤄 보더라도 이러한 노력들은 사업의 당위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단지 예산이 확정됐다는 점 하나로 이후 집행되는 모든 과정과 결정들이 광주 시민의 정서와 요구에서 자유롭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화예술 기반 사업에서의 결정은 예산집행이나 다른 물리적 요건보다 오히려 이들에 내포된 정신문화나 시민의 정서적 유대감을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본다. 소식에 의하면 신축 비엔날레관 부지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비엔날레 주차장을 결정한 듯하다. 그러나 광주시가 고려하고 있는 이곳은 서두에 언급한 인문지리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접근성이나 주변 시설과의 관계, 그리고 광주 문화 역사적 관점에서 새로운 '장소'로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허약해 보인다.

단지 광주 역사와 문화를 몸으로 체험해 온 바에 의하더라도 광주시의 부지 선정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더욱이 대대손손 이어갈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서의 장소를 결정한다는 데 별다른 논의없이 결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장소'로서 자리매김할 신축 비엔날레관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인간과 장소 간의 따뜻한 유대'가 선행되었을 때, 그 가치와 효용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필자는 그 대안으로 현재 공동화되어 있는 임동 방직공장(구 전남방직+일신방직) 건물과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주장하고 싶다. 신축 비엔날레관의 적임지로서 방직공장 부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

서두에 언급했듯 한 장소가 가진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사회문화 역사적 맥락과 함께 입지가 지닌 효율성 또한 결합되어야 한다. 이뿐 아니라 현실적 상황과 조건, 그리고 사업 진행 후의 만족할 만한 성과 또한 중요한 고려의 대상인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점에서 구 전남방직 터에 비엔날레관이 재탄생한다면 언급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도 새로운 부가 효과까지 낼 수 있음을 확신한다.

광주에 한국 근대산업의 한 표본이기도 했던 방직공장이라는 상징적 장소와 예향이라는 문화 예술적 자부심이 한데 결합할 수 있는 천혜의 장소가 다름 아닌 신축 비엔날레관의 최적임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장소가 단지 인문 문화 지리학적관점에서의 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 효용성의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임동 방직공장 부지는 종합터미널에서 가깝고,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금남로와 예술의거리가 지척에 있어 주변 인프라와 쉽게 결합할 수 있다.

독일 카셀(Kassel)의 국제 미술 전람회장을 비롯해 화력 발전소인 뱅크 사이드 발전소를 미술관으로 멋지게 개조해 성공한 영국 테이트 모던, 이태리 베니스 비엔날레나 중국 베이징 798예술특구와 최근 창고 38동을 개조한 청주시 공예비엔날레장, 유휴 양곡창고를 활용한 인천 아트 플랫폼 등은 도시 재생시설을 기반으로 지역 유휴시설을 공적 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함으로서 성공을 거둔 국내외 사례다.

이에 반해 광주는 해체적 발상으로 아까운 문화건축과 수리자산인 남광주역사 철거나 경양방죽 매립 같은 오판을 한 바 있다. 다시는 재반복돼서는 안될 일이다.

결론적으로 신축 비엔날레관은 신중한 결정이 먼저다. 밀어붙이기식 행정편의주의나 성과주의는 지역 문화예술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 뻔하다. 신축 비엔날레관은 미래 광주미술 100년의 스토리가 담길만한 곳으로 새로운 예술적 가치와 해석이 가능한 곳이 장소가 돼야 한다.

※외부 필진 기고는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이승남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귀농어귀촌팀장

"귀농·귀촌… 전남서 인생2막을"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700만명으로 전체인구 14%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820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은퇴를앞둔 베이붐세대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고 도시민들의 새로운 삶의 대안이자 활력요소가 필요한 요즘이다.

이들의 관심을 끄는 '전남(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도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를 롤 모델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신설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10개 광역도·104개 시·군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귀농귀촌 새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남(농촌)살아보기는 2019년 810명이 참가해 92명이 전남으로 주소를 이전했으며 2020년 470명 참가해 125명, 2021년 523명이 참가해 71명, 지난해 351명 참가해 66명이 유입되는 성과를 거뒀다. 참가자 16% 이상이 그 해 전남으로 주소를 옮겼다. 다른 인구유치 사업에 비해 가성비가 좋은 효자 사업으로 자리매김 됐다.

전남(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도내 21개 시·군 및 마을·농가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어귀촌 교육, 현장체험, 주민교류 등 프로그램 중심의 귀촌형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품목을 재배하기 위해 영농기술을 습득하는 귀농형 △1차 농수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 기술 및 전문기술 전수 교육을 운영하는 청년 프로젝트형 등 3개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귀농귀촌시 시급한 거주지를 제공해 귀농어귀촌 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예비 귀농어귀촌인이나 최근 정착한 주민을 대상으로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공 등 전문기술과 취·창업 기술 이전 등 단계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도시민은 농어촌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게 되며 농산어촌 마을은 도시민과 함께 살아가면서 마을 공동화를 극복하고 마을 주민 스스로 귀농어귀촌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남(농촌)살아보기'의 장점은 운영마을 사무장이 멘토 역할을 자청해 참가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가자가 미래에 정착할 집이나 토지를 알선·구매하도록 도움을 준다. 농어촌 실정을 모르는 도시민 입장에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마을 주민과 관계에서 주민 대표가 중재자 역할을 담당해 역귀농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귀농어귀촌분야 핵심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유치지원,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자금지원, 귀농어인의 집 조성 지원,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자금 지원, 어울림 마을 조성, 어울림 대회 등이 있다.

전남도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유치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며 도시민이 전남에서 안정 정착 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전남만의 차별화 시책을 지속 발굴해 갈 예정이며 농어촌 활력 형성에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독자투고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돈 이야기 할 땐 일단 의심

피싱전화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편취하는 방법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최근 성행하고 있다. 금융기관 사칭을 통해 "OO은행 직원입니다. 저금리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에 속아 돈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현재도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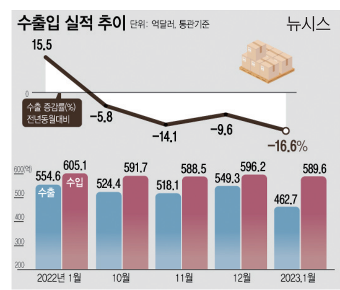
피싱범은 인상착의를 모두 가린채 차량도 타지않고 도보를 통해 대면하기에 CCTV를 통한 추적 수사 또한 쉽지 않다. 검찰사칭, 금감원사칭, 자녀사칭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명심할 대목은 그 어떤 기관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로 만나 현금을 건네주거나 맡겨놓으라고 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핸드폰을 통해 이뤄진다. 악성코드 점검을 통해 핸드폰 해킹유무 확인이 필요하다. 경찰청은 '시티즌 코난'이라는 불법 어플 탐지앱을 개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알려 피해를 막아주고 있다.

임기헌 〈나주경찰서 수사지원팀 순경〉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HAPPY MEMORIES
롯데시네마 충장로관
▶전 관 천연가죽 리클라이너 쇼파석 (커플석보유)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스푼더마켓 충장로점 062-222-7733

주차장 안내

전용주차장
<주간&야간> 신동아 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 첫영화부터 마지막 영화까지 !!!
제휴주차장
<주간&야간> 동아주차장, 파레스주차장 3시간무료
- 운영시간 : 오전 09:00 ~ 마지막 영화까지!!
<주간> 황금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 오전09:00~오후20:30까지
※3시간 무료 주차이후,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드롭탑&파파이스 이용시 1시간 30분 무료주차 가능(파레스·동아·신동아 주차장에 한함)

롯데시네마 충장로관

1관	교섭 / 유령
2관	바빌론 / 교섭
3관	아바타:물의 길
4관	상견니 / 돌핀보이
5관	유령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6관	영웅 / 메간
7관	바빌론 / 유령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8관	영웅 / 메간
9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 유령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안길 12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6년근 홍삼 100% 60포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